

2023년 9월 16일 (9월 8호)

월간 양지

소식지 8호

1

초심을 잃으면 꿈의 방향을 잃는다.

/ 입시전략실 • 퍼넨국/ 양지메가스터디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16 ☎ (031) 326-5000

양지광장

오늘을 여는 글
"한 걸음 한 걸음"



한꺼번에 많이 먹은 밥은 체하게 마련이고, 급하게 계단을 두 개씩 올라가다 보면 급방 다리가 아파 얼마 못 가고 포기한다. 모든 이치가 똑같다. 차근차근 한 걸음, 한걸음, 내달다 보면 벌써 내 수준은 저만큼 가 있다.

이것이 바로 노력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이며 이것이 공부였다.

-김규환의<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합니다. 조금해지면 실수를 하거나 사고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 정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가면 됩니다. **꾸준한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여기 양지에서 바라고 잘 해왔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참 공부입니다.** "현재의 열정이 미래의 행복을 담보하고, 현재를 풍성하게 해준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 열정을 쏟아부으고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4 大入전형

2023학년도 등급 컷

2023학년도 수능 원점수 대비 등급 컷					
	국어		수학		
	화작	언매	미적	기하	확통
1 등급	95	91	84	87	88~89
2 등급	90	86	75	77~78	80
3 등급	85	81	70~71	71	71

*선택과목 응시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높으면 해당과목 응시자의 점수가 더 높게 됨
*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선택과목별로 공통과목의 평균점수에 따라 표점이 달라짐.

2023학년도 수능 원점수 등급 컷

	과목 탐구(2022/2023)			
	물리 I	화학 I	생명 I	지학 I
1 등급	43	45	42	43
등급	46	43	42	42
2 등급	40	43	39	38
등급	43	38	39	39
3 등급	35	40	36	33
등급	37	32	36	34

2023학년도 수능 원점수 등급 컷

	과목 탐구(2022/2023)			
	물리 II	화학 II	생명 II	지학 II
1 등급	47	47	47	40
등급	43	43	45	48
2 등급	43	44	43	36
등급	40	39	41	44
3 등급	39	37	39	31
등급	35	34	36	40

2023학년도 수능 원점수 등급 컷

	사회 탐구(2022/2023)				
	경제	동아 시아	사회 문화	생윤	세계사
1 등급	50	50	46	47	50
등급	45	50	42	45	47
2 등급	47	47	43	45	47
등급	40	47	38	42	44
3 등급	42	42	39	42	43
등급	34	43	35	36	39

2023학년도 수능 원점수 등급 컷

	사회 탐구(2022/2023)			
	세지	윤사	정치법	한지
1 등급	50	47	50	50
등급	48	45	42	48
2 등급	47	45	48	47
등급	44	41	39	45
3 등급	43	39	45	43
등급	39	34	34	40

2023 입결 점수

*2023학년도 양지12기 선배들의 많은 입결 데이터중 극히 일부임

*수학 및 국어과목등 특정과목이 부족하더라도 상위권대 진학가능함

*표준점수, 백분위, 변표등 대학은 수능성적 활용지표 및 각 과목별 반영비를 그리고 가산점등에 따라 정시전형 점수를 산출함.

■ 인문계열은 수학(확통)3등급 및 4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도 중상위권 대학 입학가능함.

1. 가군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합격
나군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합격
▶ 국어1 / 확통3 / 영어2 / 경제1 / 사문1
 2. 가군 한양대 영어교육과 추가합격
▶ 국어1 / 확통3 / 영어2 / 경제1 / 사문1
 3. 가군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합격
나군 한국외대 경영학부 추가합격
▶ 국어1 / 확통3 / 영어1 / 경제1 / 사문1
 4. 나군 이화여대 통합선발(인문) 추가합격
▶ 국어2 / 확통3 / 영어2 / 생윤1 / 윤사1
 5. 나군 경인교대 초등교육학과 합격
나군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추합
▶ 국어1 / 확통4 / 영어1 / 동아사1 / 세계사1
 6. 다군 홍익대 불어불문학과 추가합격
▶ 국어2 / 확통4 / 영어2 / 생윤2 / 윤사1
 7. 가군 경희대 프랑스어학과 합격
▶ 국어3 / 확통4 / 영어1 / 생윤1 / 세계사1
-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수학뿐만 아니라 탐구과목에도 잘 준비해야 함.

■ 자연계열은 국어(화학/언매) 3등급 및 4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 가능함.

1. 가군 한양대 전기공학과 합격
나군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합격
▶ 국어3 / 미적1 / 영어3 / 물리 I 1 / 지학 I 1
2. 가군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합격
나군 성균관대 공학계열 합격
▶ 국어3 / 미적1 / 영어2 / 화학 I 1 / 지학 I 1
3. 한양대 기계공학부 합격
▶ 국어4 / 기하1 / 영어3 / 물리 I 1 / 지학 I 1

- 4. 나군 성균관대 공학계열 추가합격
다군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추가합격
▶ 국어3 / 미적1/ 영어1/ 물리 I2 / 화학 I2
- 5. 가군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합격
나군 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추합
다군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합격
▶ 국어4 / 미적1/ 영어2/ 화학 I1 / 지학 I2
- 6. 가군 경희대 생물학과 합격
▶ 국어3 / 미적2/ 영어2/ 생명 I1/ 화학 I3
- 7. 나군 이화여대 뇌인지과학부 추가합격
▶ 국어4 / 기하1/ 영어1/ 생명 I3 / 지학 I1
- 국어과목이 부족한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수학뿐만 아니라 탐구과목에도 잘 준비해야 함.

●9호 발행시 메디컬입결 및 SKY 대학등 주요대학 입결제시

2024 대입전형계획

① 전년도와 다르게 무엇이 바뀌었나?

▶ 정시 의대 입시 변경 사항

대학	정시 의대 입시 변경사항
가톨릭 관동대	변경 : 나군 → 다군
강원대	(미적분·기하) 및 과탐 가산점 부여 폐지
건국대 글로벌	수능 반영 점수 변경 : 백분위 → 표준점수
단국대 (천안)	영어 : 2등급 환산점수 변경 (80점 → 90점)
대구 가톨릭 대	영역별 반영 비율 변경 : 국수영과(25/40/15/20 → 30/30/15/25) 과탐: 상위1과목 → 2과목 평균
이화 여대	인문계 영역별 가중치 변경 : 국/수/영/탐구 = 30/30/20/20
인하대	영어 : 등급별 점수 조정
전북대	군 변경 : 가군 → 나군
중앙대	과탐 과목 선택 제한 폐지 (동일과목 1개 불가 → 가능)
충남대	과탐 반영 점수 변경 : 변환표준점수 → 표준점수
한양대	과탐II 과목 응시 : 가산점 폐지

▶ 정시 치대 입시 변경 사항

대학	정시 치대 입시 변경사항
단국대	모집군 변경 : 나군 → 다군
부산대	모집군 변동(가→나)
서울대	과탐II 필수 폐지, 과탐II 가산점(1+1 3점, 1+1 5점)
원광대	(인문) 사람 선택 지정

▶ 정시 한의대 입시 변경 사항

대학	정시 한의대 입시 변경사항
가천대	수학(미적분/기하), 과탐 가산점 변경 (우수한 순으로 3~5% → 수학3%, 과탐3%)
경희대	인문 수능 선택과목 변경(미지정→확통+사탐)
대전대	영어 1~2등급 배점 변경 (1등급200, 2등급190 → 1등급200, 2등급180)
동신대	수학 가산점 5% 폐지

●9호발행시정시 약학대, 수의대 수록

마음을 여는 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매일 만나면서도 그냥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하고 싶지만 참았던 이야기, 헤어지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아이들의 따뜻하고 보석같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며, 끝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진심으로 수능이 끝난뒤에 우리반 아이들과 다시 만나 지난 일년의 생활을 같이 추억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을 잘 봐야 한다. 수능에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룰 수 없다.
수능 이후의 내 삶을 위해 열심히 하자.

피곤하다고 쓰러지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자
수능 그 자체를,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겠지만, 그것을 즐길 수 없다면 수능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이겨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항상 수능이후의 삶을 생각해보시고 더욱 더 힘을 내시길 바라요 으쌰으쌰 하도록 합시다.

양지10기 - 익명 -



- “선불리 예상하지 말라. 특히 미래에 대해선.”
-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소망하라 진정으로 믿으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 희망은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꾸준한 것이 가장 힘이 셉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일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60일동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가장 파워풀하고, 파파적인 습관입니다.

- ▶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의 말 건네기
- ▶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한 일은 침묵하기
- ▶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짹 짹 쳐주기
- ▶ 잘한 일은 침묵하기
- ▶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반드시 표현하기
- ▶ 내 자신을 존중하기
- ▶ 매 순간 누구에게나 정직하기
- ▶ 아무리 화가 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꼭 지키기
- ▶ 갈등은 부드럽고 차근차근 풀기
- ▶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어린 편지쓰기
- ▶ 마주치는 것들마다 감사의 마음 갖기

선배는 Vision 2023 이렇게 공부했다

김민주 양지12기 (대전대 한의예과 합격)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작년 양지 12기로 입학하여 정시로 대전대 한의예과에 합격한 김민주입니다. 저의 공부법과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칼럼에 최대한 녹여내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재수생의 신분으로 이곳에서 공부했고, 여러분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니만큼 제가 감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7개월, 혹은 그보다 짧거나 긴 시간 달려오셨고 그 방법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공부법과 다르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의 관점은 사례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칼럼은 3-4등급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법을 주로 담을 것입니다.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의 성적이 실제로 3-4등급이었고 각 등급별로 필요한 공부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성적대의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 공부법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공부량'**을 중요시합니다. 양치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 공부량이 없으면 어떤 공부법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작년의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하기 전 마인드 세팅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의 저는 중요한 시험 두어 달 앞두고 있을 때 A4 용지 한장에 현재 나의 성적과 목표 성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유들 중에서 제가 매 시험마다 빠뜨리지 않고 적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지금 양지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 있다.'였습니다. 이 공간은 이곳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공부해야 할 이유를 가집니다. 대다수의 여러분은 성인이고 아무리 부모님이나 주변인의 압박으로 학원에 들어왔다고 해도 개인의 의지로 충분히 학원에 들어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곳에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고 여러분은 이곳에 공부를 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최대한 공부를

당연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목표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스스로 채찍질하고 달려가고 계실 여러분인걸 알지만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한 공부량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달성해내기 어려운 것이기에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독해하지 못했다고 낙담 마시고 그저 오늘 눈앞에 주어진 것을 하시고, 여기서 해야 하는 생활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또 공부를 할 때는 언제나 효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달려나갈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빠를 필요는 없지만 느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집중하고 몰입하는 상태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공부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법은 본인에게 맞는 것만 취사선택하여 적용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준비

국어 영역

-독서: 독서의 경우 학원에 계신 많은 선생님께서 이미 독서법은 훌륭히 전달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여 저는 제가 공부했던 루틴과 공부법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양을 꾸준히 공부해야 실력이 유지되고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일 점심시간 30분, 저녁 시간 30분을 이용하여 독서와 문학을 3세트씩 풀었습니다. 점심에 문학을 하면 저녁에는 독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서 지문을 풀 때는 문제를 푸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머리에 담고 있는지, 또 선지를 잘 이해했는지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다시 잘 머리에 정리해 두기 위해 문제를 풀 뒤 다시 지문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선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가 의미하는 바를 지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다시 표현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가 지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지를 잘 이해했다면 선지를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볼 때는 이랬고 독서 세트를 공부할 때는 가재첩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문 세트 하나를 풀 다음에는 답지를 보기 전 다시 지문을 읽고 선지를 보면서 내가 풀 답을 채점해 봅니다. 시간의 압박을 받으며 처음 보는 지문을 풀 때와 한 번 잘 읽었던 지문을 시간의 압박 없이 풀 때는 보이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재첩을 마치고 다시 답지를 보며 채점을 해 보면 틀린 줄 알았는데 맞은 것도 있고, 맞은

줄 알았는데 틀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틀린 줄 알았는데 맞은 것입니다.

내가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답을 낸 것은 실수도 아닐 뿐더러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맞은 줄 알았는데 틀린 것은 시간의 압박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똑같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므로 지문을 잘못 읽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틀린 줄 알았는데 맞은 것, 맞은 줄 알았는데 틀린 것, 틀렸다고 판단했고 틀린 것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국어는 수험 생활의 후반부로 갈수록 양을 늘리고 많이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기에 국어는 시험 볼 때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독서에 자신없는 학생들이 많기에 독서 파트에 이 말을 남깁니다.

-문학: 문학의 경우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 읽으면 오래 답을 찾을 수 있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저는 선지 속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정답을 찾기 위해 문제를 푼 뒤 선지에 포함되어있는 개념어의 예시를 지문에서 찾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문학은 많은 학생들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며 오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은 대부분 의의가 나와도 명확한 근거로 반박할 수 있게 출제됩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문제들(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9월, LEET 등)을 이용하여 선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험을 볼 때는 선지를 끊어 읽으며 선지의 모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문학 시간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학 풀이 시간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빨리 푸는 것이 오히려 실수를 덜 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푸는 것이 본인과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리하게 시간을 줄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문학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 읽기 방식을 바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락을 전후로 나누어 읽거나 (가), (나)로 나누어진 지문의 경우 한 지문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지를 모두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제가 효과를 본 방식이지만 이미 읽기 방식이 정착된 학생들에게는 익숙해지기 전까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 저는 언어와 매체가 국어 영역 중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었는데, 우선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 언어와 매체 기본서를 2회독했고 기출 문제 오답을 꼼꼼히 했습니다. 기본서를 볼 때는 각 예시와 정의를 정독하며 이해

하고 예제를 통해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때는 크게 양기에 짐작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2회독을 한 뒤에는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갔습니다. 기출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고 선지 하나하나를 납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에서 (가)의 형태소를 물었어도 (나), (다)의 형태소를 모두 분석하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양기가 필요하거나 유독 오답이 많은 개념의 경우 따로 노트에 정리하여 옆에 문제를 붙이고 최대한 많은 예시를 적어 들고 다니며 양기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기출문제를 다 납득한다는 생각이 온 공부에 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특강 풀이로 넘어갔는데 수능특강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택 영역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주에 2-3회 정도는 반드시 공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후반부로 넘어가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저는 이때 매체를 먼저 풀고 매체 지문에서 문제로 나올 법한 문장을 미리 체크해 두는 등 나름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풀이 순서, 지문의 내용을 고려하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영역:

-수학의 경우 공부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 한번에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은 절대적인 양이 없어서는 성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양치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출문제, 연계교재 정도는 다 풀어야 하고 새로운 유형이나 고난도 문제를 대비한 사설 문제들도 접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직까지도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이 하시는 학생들을 위해 개념 적용에 관한 공부법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개념을 몰라서 막히거나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1 삼각함수와 도형이 결합된 문제인데 cos법칙이나 sin법칙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cos법칙, sin법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문제에 이 법칙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문제의 경우 문제의 한쪽에 sin, cos 법칙 사용하기 등의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수능특강이나 기출문제집의 경우 문제가 단원별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단원을 풀고 그 단원 문제들에 적합한 메모를 보면 내가 어떤 개념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다시 모아서 풀면서 제가 잘 적용하지 못하는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해 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오답 처리 방법입니다. 개념을 적용하지 못해 틀린 문제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이가 답지와

비슷했다면 답지를 한 줄씩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푼 부분까지 답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한 줄을 더 보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므로 반드시 체크해 두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다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또 한 줄을 더 확인해 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오답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물론 막힌다고 바로 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이나 15분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고민하다가 답지를 확인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은 개인의 실력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맞추어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를 다른 공부에 비해 오랫동안 했고 준킬러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서는 22번이나 30번 같은 킬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과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험 생활 후반부에 들어서는 4점 10문제나 13문제 정도를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10분 정도로 정해 두고 시간 압박을 느끼며 푸는 연습도 했습니다.

③ 영어 영역

-영어는 단어와 구문 해석이 중요합니다. 또한 언어인 만큼 감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단어 양기를 제외하고 한 시간 정도는 영어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초반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문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해석하려고 노력했고 중후반부에는 시간 배분을 하며 문제풀이하는 데에 더 집중했습니다. 영어 오답은 내가 답의 근거라고 생각한 부분과 출제자가 답의 근거라고 생각한 부분을 비교하며 한 번 더 해석해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문장들은 연결지어 읽어보며 출제자가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꼭 꾸준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단어도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외우셔야 합니다.

④ 탐구 영역(화학 I)

-화학의 경우 1, 2, 3페이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각 페이지 별로 시간을 차며 시간의 압박을 평소에도 느끼며 연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학탐구는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오고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짧게 설정해 그런 실수에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화학의 경우 2, 3단원의 준킬러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여 성적 정체기에는 의도적으로 2, 3단원 풀이량을 늘렸고 1, 4단원의 킬러 문제의 경우 매일 한 두 문제 정도를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느 정도 성적 향상을 이루고 난 뒤에 킬러 문제의 풀이량을 늘렸습니다.

④ 탐구 영역(생명과학 I)

-생명과학은 비유전과 유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유전 14문제는 시간을 7분, 8분 정도로 정해 두고 빠르게 실수 없이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이런 연습을 하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옳지 않은 선지의 경우 모두 옳게 바꾸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유전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있는 근수축이나 신경 전달의 경우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많은 양을 한 번에 풀고 계속 오답이 나오는 단원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한두 문제 정도를 오답 발생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풀었습니다.

유전의 경우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양기가 중요한데, 이는 과학 탐구의 문제 풀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모순이 발생하면 미련없이 다른 경우를 대입해보는 연습을 여러번 했고 선생님의 프린트를 이용하여 양기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과학 탐구 역시 절대량이 중요한 과목이기에 기출문제, 연계교재, 전년도 연계교재 등 많은 양을 성실히 풀어 보셔야 합니다. 오답을 할 때는 선지 하나하나를 맞게 바꾸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양지 후배들을 위한 조언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괜스레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방법은 하나의 예시일 뿐 자신의 방식에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본인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셨다면 여러분은 분명 저력이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집중해서, 눈 앞에 주어진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날그날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 양이 간절하고 가능한 공부량이라면, 그 계획을 실천해낸 여러분은 오늘도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적절한 길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면 스스로의 노력을 믿으세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쌓아온 노력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나태해질 때면, 스스로 믿을 만한 노력을 하세요.

오늘도 양지에서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달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표표를 향한 것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내는 목표에 달기를 응원합니다.